

2009년 9월 25일(금) 서울전도집회 중에 하신 예수님 말씀_주사랑 회원

<예수님 기도>

심정다해 기도하노니 적어라.

아버지여, 지금 저는 기도합니다. 제가 바울이를 쓰고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전하고 있니다. 저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아버지 분명 계시는데 어쩔 그리 모를까요?

아버지여, 지금 이 기도 들으셔서 절대 저 사탄 개미만한거 하나라도 오지 않게 하시며 계속 아버지 직접 저 사람들 살려주시고 사탄마귀 물리쳐주시고 어머니여, 어머니여, 내 눈에 보지만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. 이 안에서 확실히 100% 녹아져야 저를 느껴야 됩니다. 이곳을 나가자마자 사탄들 득썰득썰 오늘 온 자들에게 가서 뒤집어씁니다.

아버지, 아버지, 제 아버지 맞으시지 않습니까. 눈물로 애원하는 이 애원하는 이 아들의 기도 들어주옵소서. 나의 아버지. 자비의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(그리고 오늘 강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셨고 그 옆에서 예수님도 함께 흐느끼셨습니다.)

사랑하는 자들이여,

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.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.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. 그런데 내가 늘 너와 함께하는데 너가 몰라주니 내가 지금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니 들어라.

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. 너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다. 왜,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. 사랑은 커녕 왜 쳐다봐주지도 않느냐. 혹은 쳐다보았다 안 보았다 하느냐.

나는 주일 1시간만 너희의 아버지더냐. 나는 아담, 하와 이후 6천년간 너희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에 갇혀 있다. 이제 그만 이 감옥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.

너와 내가 상관없다면 내가 왜 너를 향해 눈물지으며 오라 하겠냐.

나는 있다. 분명히 있다. 나는 사랑받고 싶다.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. 나는 너희가 지옥가라고 지옥 만들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너희 발로 저벽저벽 걸어가고 내 아들 예수의 손을 뿌리치느냐.

나는 너희에게 자존심도 없이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. 내 아들 예수를 보내고 또 보내노라. 그 십자가의 사연을 아느냐. 내 아들 예수가 왜 죽어야 하나?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하니 나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. 살인마가 가지는 죄책감으로 내 아들 예수를 바라보노라.

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래도 내 아들 예수를 지상에 보내고 또 보내노라. 제발 제발 나의 말을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다오. 내 사랑의 눈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느냐. 나의 손 좀 잡아다오. 제발, 제발 나를 시인해다오. 왜 내가 있음을 느끼는데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사느냐. 제발, 제발 나를 믿어다오. 이제 내가 너희에게 호소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.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도 많이 있구나. 어찌하면 좋을꼬, 내가

직접 나와 이야기 하는데 날 버리고 간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더 너희에게 빌어야 하는 것이냐. 지옥으로 너희 발로 걸어가며 나를 구두 발로 짓밟는 너를 어찌해야 해나. 마음 아프다. 아프기만 하는줄 아느냐. 심령의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저미고 저며 죽을 것만 같구나.

제발 내 아들 예수가 천사장 나팔을 불며 재림할 그 날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믿어다오. 오늘 이후 언제 기회가 올지는 나도 모르겠다. 내일? 나는 모른다.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위해 목숨 걸었다. 내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너희위해 받치었다. 내 마지막 호소를 엄히 들어다오. 사탄들은 너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간다. 그 손은 뿌리치지 않고 신나게 잡으며 왜 내 손은 뿌리치느냐. 제발, 제발 나의 이 말을 들어다오. 기억해다오.

내가 너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. 사랑해. 날 버리지 말아줘. 너희에게 애원하며 나 여호와가 내 아들 예수와 함께. 안녕. 나 버리지 마.